

2015년 일본의 트렌드 예측

- '15년은 일본에서도 많은 변화가 예상되며, 소비 트렌드도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창조하는 상품들이 주목을 받을 것임
- 2020년 도쿄올림픽 준비를 위한 시설 정비 및 환경 개선 투자가 증가할 예정이어서 일본 경제도 다소 회복할 것으로 전망됨

□ 공산품의 하이테크 진화

- 도요타자동차는 '14.12.15에 연료전지자동차(FCV) 「미라이」의 판매를 시작, 혼다도 '15.3월 FCV의 판매 예정
 - 연료를 충전하는 수소 스테이션이 일본국내에서 약 100개소 설치되는 등 '15년은 「FCV 원년」이 될 전망
 - 딜로이트 토마즈 컨설팅은 '2030년 일본국내에서 FCV가 40만대에 도달하여 경제 효과는 4조 4,000억 엔에 이를 것으로 예상
- 미라이의 구입가격은 약 520만 엔으로 보급이 확산되기는 어렵겠지만, 에코카시장을 확대시키는데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15.2월에는 폭스바겐도 최초로 전기자동차(EV)를 판매할 예정
 - 차세대 자동차 등장으로 젊은이들의 자동차에 대한 관심 저하를 막을 수 있는지가 주목되고 있음
- '15.3월에 차세대 고화질 해상도 「4K」 방송 전문 채널이 개국, 이후 샤프가 해상도가 더 높은 「8K」를 도입할 예정

□ 미래형 소비 증가

- iPod의 등장으로 CD에서 다운로드하는 방식으로 전환된 음악이 향후에는 「스트리밍 방식*」으로 다시 전환될 것으로 예상

- * 스트리밍 음악 서비스는 파일을 끝까지 다운로드 하기 전에 전송된 파일부터 먼저 재생할 수 있는 방식
- 현재 유럽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는 이 시장에 일본기업도 잇달아 진입
- 애플의 웨어러블 디바이스 「애플워치」는 메일 작성 및 수신, 음악 재생은 물론 결제 기능이 도입될 것으로 예상
- 고급 브랜드 손목시계가 아닌 중저가격대 손목시계를 판매하는 기업은 매출 감소가 우려됨
- 만화나 애니메이션을 비롯해 로봇을 좋아하는 일본에서 우선 제품을 투입한 후에 세계 시장에서 마케팅 하는 기업도 등장, 일본의 로봇 시장이 향후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임
- 영국 가전기업인 다이슨은 ‘15년 봄에 로봇청소기 「Dyson 360 eye*」를 일본에서 판매를 시작하겠다고 발표
 - * 스마트폰으로 조작할 수 있는 사이클론 청소기
- 프랑스의 Aldebaran Robotics와 소프트뱅크모바일이 공동개발하고, 대만의 홍하이 정밀공업이 제조하는 감정인식 휴머노이드 로봇·페퍼*는 감정 엔진과 클라우드AI를 탑재
 - * 페퍼의 판매가격은 19만8000엔으로 소프트뱅크는 양산 체제가 확립될 때까지는 관련 앱, 클라우드 사용요금에서 이익을 창출할 계획

□ 일본국내 관광 활성화

- 엔저로 일본인의 해외여행 선호도가 감소하는 대신, 교통 인프라 정비, 대형 시설의 개업이 늘어나 일본국내 관광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 ‘15.3월 호쿠리쿠 신간선 개통, ’15년 상반기 NHK 아침드라마의 무대인 노도반도, 히다 다카야마의 관광 코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전망
 - 종착역인 이시카와현 가나자와역 앞에서는 호텔이 건설되고 있고, ‘15.7월에는 도야마현 오야베시에서 호쿠리쿠 최초 대형 아웃렛몰이 개업 예정
- ‘15년에는 오키나와현의 「이온몰 오키나와 라이컴」, 나고야역의 「大나고야 빌딩」, 오사카의 엑스포랜드에 건설 중인 복합시설 등 지방에 대형 상업시설이 개업할 예정이어서 지역 간 사람 이동이 늘어날 것으로 보임

- '15년 일본국내 관광객은 '14년을 웃돌 것으로 전망되며, 일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시사점

- 2020년 도쿄 올림픽을 대비하여 '15년에는 다양한 분야에서 투자가 늘어 날 것으로 예상
 - 상품 발주량 증가, 콘텐츠 개발, 신제품 개발 등이 늘어날 전망이어서 관련 산업의 실적 향상이 기대
 - 부품의 공용화, 유통 시스템의 개선 등에서 한일 기업이 협력할 수 있는 분야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
- '15.10월로 예정했던 소비세 인상(10%)이 '17년으로 연기되었기 때문에 '15~'16년에는 주택이나 자동차 등 가격이 비싼 상품의 사전구매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음
 - 인구 1억이 넘는 일본의 내수시장 공략도 필요하지만 '15년에도 엔저가 지속되면 일본시장 진출이 위축될 우려
 - FCV나 로봇 등 하이테크 관련 제품의 트렌드가 본격화되면 우리 기업에도 비즈니스 찬스가 생기기 때문에 시장 동향에 주목하면서 대응해 나갈 필요

[참고] 2015년 일본 트렌드 달력

시기	행사	내용
2월 1일	폭스바겐 일본법인 전기자동차 「e-up!」 판매	폭스바겐 최초 EV. 가격은 366만 9,000엔. '15년 중반에는 「GOLF」의 EV도 판매. 일본국내에서 구입할 수 있는 EV 차종이 확대
2월	소프트뱅크가 휴머노이드 로봇 「페퍼(Pepper)」 판매	감정을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개발한 인공지능을 가진 로봇. 가격은 19만 8,000엔
	2020년 도쿄 올림픽·패럴림픽 대회 기본계획 책정	국제 올림픽 위원회(IOC)에 계획을 제출, 개최 준비 본격화
3월 1일	「4K」 전문 유료 채널 방송 개시	스카이퍼펙트TV JSAT가 개국. J리그 경기, 영화, 콘서트 등을 중심으로 방송
3월 14일	호쿠리쿠 신간선 개업	현재 약 3시간 50분 걸리는 도쿄-가나자와(이시카와현) 간을 최단 2시간 28분으로 연결. 하루 이용승객은 2만 3,000명으로 예상

봄	애플이 「애플 워치」를 판매	애플 최초 손목시계형 단말. 가격은 349달러(약 4만 1,200엔)부터. 메시지, 음악 재생 외에 결제 기능도 도입될 가능성도 있음
	식품 전반에서 기능성 표시 해금	기업의 책임으로 신체 부위마다 기능성을 표시할 수 있게 됨. 기존보다 쉽게 기능 표시가 가능해져 건강식품 시장 확대 예상
	오키나와현에 「이온물 오카나와 라이컴」 개업	오키나와 최대 규모의 대형 상업시설. 리조트 감각으로 즐길 수 있는 관광 시설로 국내외 관광객이 증가할 전망
	침대특급 「트와이라이트 익스프레스」 운행 종료	1989년 운영을 개시한 침대열차. 약 22시간으로 오사카와 삿포르를 연결. 열차 내에서 제공되는 프랑스 요리가 인기
4월	경자동차 증세	'15.4월 이후 구매하는 신차부터 현재의 1.5배인 1만 800엔으로 세금 인상. 혼다가 고급 개업카이면서도 경자동차인 「S660」을 개발하는 등 각 자동차 기업은 증세 후도 팔리는 신차 개발 경쟁에 돌입
5월	SIM록 해제 의무화	'15.5월 이후 판매될 단말은 이용자가 요구하면 무료로 SIM록 해제가 가능. 통신사 이동의 촉진이 기대되며, 총무성은 저가격 스마트폰의 계약을 '16년에 1,500만 건으로 배증 목표 설정
7월	미야기현 센다이시에 「센다이 우미노모리 수족관」 개업	약 100개의 수조를 마련. 개업 최초 연간 100만 명 입장 예상
8월 31일	호텔 오쿠라 도쿄 본관 폐관	1962년 개업한 본관을 2020년 도쿄 올림픽을 위해 2동의 고층빌딩으로 개축하는 공사에 들어감
여름	영화 「진격의 거인」 개봉	누계발행부수 4,000만부의 히트 만화가 2부작 실사 영화로 제작
	도쿄디즈니랜드에서 영화 「릴로 & 스티치」를 테마로 한 새로운 어트랙션이 개업	극장 내 스크린에 비춰진 캐릭터와 입장객이 대화할 수 있는 놀이기구
가을	도요타가 연료전지자동차 「미라이」를 유럽 등 세계 판매 시작	일본국내에서도 수소 스테이션이 증가, 연료전지자동차 보급이 확대될 전망
	엑스포랜드 터에 대형 복합시설 개업	오사카부 스이타시에 쇼핑존, 국내 최대 관람차, 수족관 등이 들어간 대규모 오락 스포티 탄생
	나고야역 앞에 「다나고야 빌딩」 등 대형 빌딩이 완성	반세기 전에 진 건물을 고층 빌딩으로 개축. 「JPT타워 나고야」도 완성
12월 8일	AKB48이 첫 공연 이후 10주년	여성 아티스트 최초 CD 판매 3000만장 돌파
12월 18일	영화 「스타워즈」 최신 편 개봉	시리즈 10년만의 신작. 장난감 기업.다카라토미는 약 150종류의 관련 상품 판매 계획을 발표
'15년 중	사이버에이전트와 에이벡스디지털의 합작회사가 음악 정액 서비스 개시	인터넷으로 듣고 싶은 음악을 수신하면서 재생하는 「스트리밍 방식」 서비스를 제공

자료 : 닷케이신문 전자판(2014.12.3)에서 정리